

##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 1. 기본정보

학과	사물인터넷학과	이름	오XX
파견국가	스웨덴	파견도시	Örebro
파견대학	Örebro university	파견기간	2022학년도 2학기
귀국여부	2023.02.08 (예정)		

###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Örebro 대학은 Örebro에 위치해 있습니다. Örebro까지는 스톡홀름 알란다 공항에서 버스로 약 두 시간 반 정도 소요됩니다. 학교 건물들은 모두 평지에 있으며, 건물들이 대체적으로 낮습니다. 캠퍼스 크기는 본교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분위기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것 같습니다. 건물마다 공부하거나 그룹 과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어, 학생들이 항상 모여 있습니다.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은 모두 남녀 공용입니다. 헬스장과 그룹 레슨을 받을 수 있는 체육관도 있습니다. 학식은 식당 건물이 따로 있지 않고, 모든 건물은 아니지만 강의실 건물에 식당이 함께 있습니다.</p>
2022-2학기 수업	<p>- Imagining Futures                      미래에 관련하여 작성된 소설 혹은 영화 등을 감상하고 이에 대해 토론하는 수업입니다. 영화보다는 대부분 책으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매주 상당한 분량의 새로운 책을 읽어야 했기 때문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어떤 주는 책과 영화, 리포트(읽기)를 동시에 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과제는 따로 없었습니다. 교수님은 수업 중에 거의 말씀하지 않으시고, 수업은 대부분 토론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떠한 압박이나 강요 없이 아주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은 Take home exam으로 이루어졌는데, 기존에 토론을 진행했던 주제에서 좀 더 나아간 질문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시험 전 주에 교수님께서 대략적으로 알려주시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답안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전공에 관계없이 수강할 수 있는 수업으로 90프로의 학생들이 교환학생이었습니다.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씩 있었습니다. 수업 횟수가 적고 과제가 없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p>

#### - Social Welfare

해당 강의는 토론 수업과 강의 형식의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론 수업을 위해서는 세 권의 책을 읽게 되며, 토론 수업 전까지 책의 한 챕터를 요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교수님께서 다른 학생들의 요약을 올려주시면, 다른 학생들의 요약을 읽어가야 합니다. 자신의 챕터는 수업시간에 정하게 됩니다. 토론 수업에서는 교수님께서 질문을 하시기도 했으며, 그룹을 지어 자유롭게 토론하기도 했습니다. 책 외에도 기사나 리포트를 읽어야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책의 분량은 Imagining Futures보다 적었으나, 용어들이나 정책이 낯설어 수업 준비, 과제 등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시험은 Written exam이었으며, 3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시험 전 주에 어느 정도 범위를 간추려 주시지만, 시험이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나와 많은 것을 암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업은 일주일에 2~3번 정도 있었습니다.

#### - Programming of Distributed Systems

본 수업은 세미나와 강의 형식의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강의 수업을 진행하며, 세미나는 대략적으로 1-2주에 한 번씩 진행됩니다. 강의 수업은 주 3~4회 정도 있어 조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미나는 그룹 과제를 발표하는 시간으로, 총 4회 진행하였습니다. 발표에는 모든 팀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첫 과제는 두 명이 한 그룹으로 진행되며, 그 이후에는 4명이 한 그룹이 됩니다. 그룹은 한 번 구성되면 바뀌지 않습니다. 그룹은 자율구성이었습니다. 각 그룹마다 다른 과제가 배정되므로 과제의 난이도는 그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려운 과제를 배정받았을 때는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습니다. 시험은 written exam으로 약 4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전 기출 문제들을 주시며, 비슷하게 나오는 문제도 있고, 새로운 문제도 있습니다. 시험의 난이도는 꽤 높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독일인으로 발음을 알아듣기 비교적 수월했습니다.

#### - Human Computer Interface

본 수업은 프로젝트형 수업이었습니다. 강의를 있긴 하나 횟수가 많지 않습니다. 3명 이하의 팀을 구성하여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수업입니다. 프로젝트의 주제는 주어진 데이터 내에서 자율입니다. 저는 짧은 영상에 대한 아이트래킹 데이터와, 도시 주행 영상에 대한 라벨링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메인 프로젝트 외에는 과제와 시험이 없습니다. 교수님은 인도분으로 발음을 알아듣기 어려웠으나, 시험이 없기 때문에 강의

	<p>자체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프로젝트의 난이도는 본인 주제를 설정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수님이 생각보다 평가를 후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난이도를 그리 높지 않게 설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프로젝트 발표가 학기가 종료된 이후여서, 학기 종료 후에도 프로젝트를 지속하여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네 과목 중 수업도 가장 적고 수월했던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p>
프로그램 운영	<p>교환학생을 위한 체계가 아주 잘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자 분들은 모두 친절하시고, 메일을 보내면 답장을 빠르게 해주십니다. 학교에 도착하면 교환학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이 5주간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만 진행을 하다가, 후에는 수업과 OP를 함께 병행하게 됩니다. OP는 그룹을 구성하여 진행하게 되는데, 그룹은 학교에서 랜덤하게 배정해줍니다. 그룹에는 교환학생을 도와주는 Fadder들이 있습니다. Fadder들은 교환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OP기간에 함께 어울려 놀기도 합니다. OP 내에는 학교 투어, 시험에 관한 안내 등 유용한 프로그램도 있으며, 펌 크로울, 각종 파티, lake day 등 다양한 재미있는 활동들도 있습니다. ESN이라는 단체가 존재하는데 ESN에 가입하면 ESN과 연계된 여행 프로그램에 할인된 가격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Lapland, Iceland, Gotland 투어 등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또한 RYAN 에어에서 할인된 가격에 비행기 티켓을 끊을 수 있고, 무료 수하물도 제공해줍니다.</p>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저는 8월 중순에 스웨덴에 도착했습니다. 스웨덴의 날씨는 생각보다 더웠고, 반팔을 꽤 오랫동안 입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해는 8시까지 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날씨가 아주 화창하고 맑았습니다.</p> <p>겨울에는 날씨는 생각보다 춥지 않았습니다. 올 해를 기준으로 한국의 날씨와 비교해보면 항상 한국의 기온이 더 낮았습니다. 스웨덴이 안 추운 것은 아니지만 걱정했던 것에 비해 춥지 않았으며, 한국과 비슷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p>
안전	<p>Örebro는 상당히 안전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숙자 혹은 비행 청소년들을 본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새벽 늦은 시간에 친구들과 걸어와도 무섭다고 느낀 적이 없습니다. 다만 자전거 도둑은 조금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숙소</p>	<p><i>학교기숙사</i>(v) <i>홈스테이</i> ( ) <i>외부 숙소</i>( ) <i>기타</i>( )</p> <p>저는 studentgatan에 살았습니다. Studentgatan은 corridor 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물에 들어가면 한 층에 두 개의 corridor가 있습니다. 한 corridor에는 8명의 학생들이 함께 살게 됩니다. 8명이 주방을 공유하게 되고, 주방의 상태는 corridor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았던 주방에는 식기류와 조리도구, 그릇들이 많았습니다. 방에서 고장난 것을 하우징 오피스 혹은 OBO에 말하면 수리하는 데까지 꽤 시간이 걸리므로 빨리 말씀드리게 좋습니다. 수리는 그냥 스페어 키로 문을 열고 들어와 해주십니다. 방의 조명이 상당히 어두워 스탠드는 필수입니다. 방은 꽤 넓은 편입니다. 침대와 큰 책상 하나, 작은 책상 하나, 의자 두 개, 책꽂이 하나가 기본 옵션입니다. 숙소의 분위기는 corridor 혹은 건물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았던 빌딩은 전부 교환학생들이었기 때문에 항상 파티가 끊이지 않았으며 시끄러웠습니다. 그치만 친구들이 가까이 있어 좋았던 것 같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식사</p>	<p><i>학교 Meal Plan</i> ( ) <i>학교식당 개별이용</i> ( ) <i>홈스테이</i> ( )</p> <p><i>외부식당</i> (v) <i>직접 요리</i> (v) <i>기타</i> ( )</p> <p>저는 주로 요리를 해먹었습니다. 우선 스웨덴의 외식 물가가 비싸기도 했고, 마땅히 먹을 만한 식당도 없었습니다. 학교 근처에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은 학식과 세 개의 사설 식당 뿐이었습니다. 학식의 퀄리티와 맛은 좋았으나 99kr로 한화 약 13000원 정도입니다. 사설 식당들은 가격과 맛이 적당했으나 매일 먹기에는 무리가 있어 주로 요리해서 먹었습니다. 마트 물가는 한국보다 훨씬 저렴해서 먹고 싶은 것을 다 해먹어도 부담이 없는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시내에 가서 외식도 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교통</p>	<p>저는 기숙사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걸어서 다녔습니다. 제가 주로 다니던 공학 건물까지 약 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버스는 Örebro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이용했습니다. 비용은 28 kr이며 한 번 티켓을 끊으면 65분간 이용 가능합니다. 학교에서 시내까지는 버스로 약 15~20분 정도이며, 저는 자전거를 구매하여 다녔습니다. 자전거로는 2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시외 교통을 이용할 때는 SJ라는 스웨덴 국영철도 앱을 이용했습니다. SJ에서 제공하는 교통편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의 모든 교통편 예매가 가능합니다. SJ가 제공하는 교통편은 출발 24시간 전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할인하여 판매합니다. Örebro에서 출도착 하는 교통편은 매진되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해당 할인을 이용하면 저렴하게 티켓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p>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80만원	키세스 투어(폴란드 항공)
Fees	오리엔테이션 비용: 12만원 기숙사 보증금: 33만원	900 kr 2500 kr
보험료	개인 보험: 45만원	학교에서 기본 보험 가입해줍니다.
숙소	260만원	20,500 kr
식비	240만원	직접 요리 + 외식
교통비	30만원	버스비
책값	-	도서관 이용
기타1		
기타2		
합계	700만원	

#### 5. 출국 전 준비사항

저는 거주허가증 발급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환학생 합격 발표가 나고 기쁜 마음에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발급받아 놓았습니다(잔고증명서 포함). 그리고 Örebro 대학교의 입학허가서를 받자마자 거주허가증을 신청하였는데, 그 시점에서 잔고 증명서의 효력이 만료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해당 서류를 그래도 제출하였기 때문에 거주허가 심사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스웨덴 이민청의 요청으로 서류를 다시 제출하였지만 고의적으로 오래된 서류를 제출했다는 심사 결과를 받았고, 재심사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심사에는 6개월이 걸린다고 안내를 받았고, 재심사 우선권을 부여해달라는 항소문을 우편으로 제출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단순히 거주허가 신청을 새로 하면 해결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혹시라도 거주허가 심사에서 탈락하게 된다면, 저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마시고 바로 새로운 거주허가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출국 날짜는 지났고,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새롭게 거주허가를 신청하면서 빨리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 드렸더니 일주일 정도만에 거주허가증이 나왔습니다. 짐을 챙길 때 공간이 부족하다면, 아우터나 바지 위주로 챙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의는 예쁜 옷이 꽤 있었는데, 아우터나 바지는 사기가 힘들었습니다. 우선 바지들이 너무나도 길었고, 핏도 한국인이 추구하는 스타일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한국 음식을 챙겨가고 싶으시다면, 국 큐브, 컵반 등의 간편 식품들을 챙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추장, 된장, 김치, 라면 등의 웬만한 식재료 들은 아시안 마트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핫팩을 많이 챙겨왔는데, 본인이 추위를 잘 안타다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안 챙겨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라플란드 여행 외에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롱패딩은 유용하게 잘 입었습니다!

## 6. 본인 소감 및 평가

너무 즐겁고 행복한 한 학기였고, 스웨덴을 고른 것은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연과 학교, 친구들 모든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블루베리 따기, 캠프파이어, 호수 가기, 하이킹, 눈썰매 등과 같이 자연에서 하는 활동들을 많이 즐겼는데 정말 행복했던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한국에서는 건물도 많고, 사람도 정말 많았는데 이 곳에서는 한적함이 정말 좋았습니다. 길고 체계적인 OP 프로그램 덕분에 많은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었고, 그 덕분에 더 즐거운 교환학생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 시설 역시 깨끗하고, 사람들은 모두 친절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어가 가능해서 수월했습니다. 왜 한 학기만 했을까 후회했을 정도로 Örebro에서의 생활이 너무 좋았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기숙사 사진</p>	<p>Örebro castle</p>
	
<p>캠프파이어와 스틱 브레드</p>	<p>기숙사 밖 풍경</p>
	
<p>친구들과의 피크닉</p>	<p>International dinner</p>



Welcome dinner



할로윈 호박 만들기



라플란드 여행에서 본 오로라



친구들과 보러 간 하키 경기



놀이공원



파티